

2023년 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12월 08일(금) 14:00~15:00
- 장 소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2층 행복실
- 작 성 자 : 최재병 팀장
- 회의내용 : 전차회의록, 보고사항 (일반현황, 4분기 세입·세출, 주요사업, 기타보고),
심의사항(추경 및 전용예산안 보고, 2024년 예산안 보고 등), 기타 안전 및 건의 등
- 참 석 자 : 관장 박인철, 이용자대표 신상기·장옥희 후원자 대표 김경미·윤성휘,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대표 강웅기, 종사자대표 고은진·최재병
박영순 부관장(운영위원회 진행), 감미진 과장(운영위원회 준비)

○ 개회	
박인철	운영위원장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진행을 대신하겠다.
○ 개의선포	
박영순	지금부터 23년 4차 통합운영위원회를 실시하겠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다.
박인철	2023년 12월 8일 4분기 마지막 통합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박영순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다.
○ 전차회의록 보고	
박인철	전차 회의록은 자료로도 있고 간사가 핵심만 말해주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박영순	(보고사항 -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
박인철	전차 회의록 들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해주면 될 것 같다.
일 동	없다.
박인철	계속보고 부탁한다.
○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박영순	(현황보고 - 현황을 보고하다.) 23년 3차 운영위원회는 9월 8일에 진행했고, 보고사항으로는 세입·세출 보고 추경 및 전용예산 보고 주요사업 성과보고가 있었다. 기타보고 사항으로는 이용자 고충 처리와 이용자 사회활동 참여보고, 주요의견으로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및 성인식 캠페인 독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심의사항으로는 금강노인복지관 4차 추경이 있었고, 금강노인문화센터 3차 추경예산안에 관해 심의하였고 위원들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이상 전체 회의록 보고를 마치겠다.
박인철	전차회의록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 옆에 현황보고에서 우리 회원수와 분관 회원 수는 계속 새로 정리를 해서 오지 않는 이용자는 빼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최근 복지관이 커지면서 소방훈련할 때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 나온 이용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어디 있

	다가 나왔지는 놀랐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구나고 알게 되었다. 다른 사항은 없는가?
일 동	없다.
곽인철	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2023년도 4분기 세입·세출 보고 부탁한다.
박영순	(보고사항 - 4분기 세입·세출을 보고하다.)
곽인철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 지금 이야기해도 되고, 안 그러면 한 번에 모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주요사업 보고로 넘어가겠다.
일 동	좋다.
곽인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부탁한다.
박영순	(보고사항 - 주요사업 성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곽인철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 15명 본관, 분관 5명 해도 본관, 분관에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 또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빼고 나면 실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 근데 워낙 고생하면서 분관, 본관 다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너무 욕심을 내서, 나는 항상 좀 일 좀 줄 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욕심 내가지고 외부 자원까지 받아와서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데, 또 한 분이라도 어르신들이 만족도를 가지 실수 있게, 우리 간담회 할 때 어르신들 애로사항과 필요한 사항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냥 “고맙다”는 이야기, “직원들 친절하고 잘한다.”는 칭찬만 해줘서 간담회를 조금 빨리 마쳤다. 그래서 어른들이 행복해하신다는 걸 좀 느낀다. 그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가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다.
곽인철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해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윤성휘	모르는 말이 있어서 물어보겠다.
곽인철	어디에 뭐라고 말해주고, 천천히 봐도 되고, 그동안 차 한잔해도 되고 천천히 하시라.
윤성휘	심신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AI 돌봄 위기 및 주요 사업보고에서 심신키트, 벨류체인, 디지털 관련 궁금하다.
곽인철	용어를 좀 쉽게 써야겠다.
박영순	심신 키트라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만들어 세트구성한 것을 심신키트라고 한다. 거기에는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구성해서 박스에 담아서 내려온 키트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세대 주는 건데 우리가 3세대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렸다.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는 삼계탕 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10월 달 추석 앞두고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성해서 준 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곽인철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전국으로 다 배분을 해야되니까 우리는 세 분이 꼭 이게 필요하다 해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달했다.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이제 중앙협회에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키트(kit)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곽인철	우리가 한 세대라도 공모사업 공고를 우리 사회복지사가 보고 있다가 그런 게 있으면 받아와서 지역사회에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곽인철	외식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끝돈이나 착한 가게처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지역사회에 함께하기로 하는데 저것도 사실은 보면 쉽지 않다. 우리 직원 한 2명이 재가세대에 혼자 거동 못하시는 분 직접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또 식당에 가서 드시게 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나와서 안 먹어 보는 음식도 드시고 행복해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곽인철	AI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인형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반려 로봇이나 이런 것도 나온다는데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는 안 되고 삼성에서 만들려고 지금 들어갔다고 한다.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 제일 우울해하고 힘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효돌이, 효순이 라고 그 인형이 어르신 “약 드세요” 하고 아무 미동이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
신상기	참 신기하다.
곽인철	그런 것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시면 트로트 노래도 불러드리고 가만히 미동이 없으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말도 시키고 한다. 요즘 자원봉사자가 너무 줄어들었고 또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비상벨 이런거는 안정감이 없다. 이 인형이 예쁘니 어떤 어른은 계속 업고 다니는 분도 계셨다.
박영순	인형을 우리가 수거해서 이제 고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인형이 없어졌다고 어르신이 나가서 찾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돌봄인형에도 애착을 가지시는 것으로 보인다.
곽인철	옷 벗기고 세탁도 하고 한다. 인형이 아이들도 목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만 있으면 더 보급하고 하면 좋은데 한 대당 100만 원 넘어간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본관, 분관 시범적으로 현대위아에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 조금 자원을 마련해서 더 받아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면에서 인형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성휘	뒷장에 보면 벨류체인 디지털 R&D 선도사업 이게 도움이 되는가?
박영순	이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원으로 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선도사업으로 먼저 나온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치매관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앱이 전달돼서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같이 앱을 작동을 해보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이제 사전 시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 하셔가지고 계속 담당자가 어르신들 활용도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협회에다 보내주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진행 해보았다. 근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앱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셨고 또 호응도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조라든지 여러가지 영양 식단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앱에서 계속 전달이 되고 어르신들이 그걸 따라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진행 했다.

윤성희	최신 사업이네요.
박영순	지금 여러가지 부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지방까지는 안 내려온 부분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 이런 선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아마 정식으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곽인철	답변이 있었다. 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는가?
일 동	없다.
곽인철	그러면 바로 신규 사업 선정하고 기타 보고 사항까지 같이 하면 되겠다.
박영순	신규 사업 선정은 우리가 지금 위에 복지관에서 하는 건 현재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밑에 금강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받았는데 내년 1월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순	(보고사항 - 신규사업을 보고하다.)
곽인철	분관이 지금 건물도 낡아서 이러는데 사실 본관도 우리가 했지만은 시설 보강해주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원 받지 않고 있다. 이제 시에서 지은 건물들은 위탁을 주든 어쨌든 시 소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라는 표현으로 그 동안 이제 기능 보강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자체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또 손을 보고 했는데도 또 비도 새고 또 열악한 환경이고 하니까 분관에 항상 죄송한 마음인데 이번에 또 직원들이 안을 올려서 공모에 선정되었다.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심사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된다.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짜가지고 올리고 그게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 받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공동모금회도 하나 이렇게 올리면 보통 20건 이상 올라오고, 그중에 선정되는 거라서 쉽지 않은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마다 잘 외부자원을 받아서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분관도 지금 법인에서 몇 번 공사도 하고 했는데 또 이번에 누수가 지금 잡히지 않아 최 팀장하고 노력해서 저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선에 좀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 분관에 가면 엘리베이터 낡달라 이야기 많으신데 그건 저번에 가서 다 주위 둘러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항상 계단 조심하도록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환경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보강이나 안에 내부수리 이런 거는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데, 이제 이번처럼 본관하듯이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새롭게 지을때는 우리가 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분관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고민을 지금은 많이 하고 대표이사님도 함께 분관 때문에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박영순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이다. (보고사항 - 기타사업을 보고하다.)
곽인철	기타 보고 사항 중 의견이 있는가 ?
일 동	없다.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곽인철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도록 하겠다.
박영순	(심의사항 - 1호 의안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다.)
곽인철	추경은 다 알겠지만, 살림을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이제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데 10만 원 나가다가 20만 원 달라 바뀌면 또 반영해야하고, 후원도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 잡고 더 나가는 거부분은 또 지출도 잡고 살림 살다보면 변경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위원회 통해서 승인받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올린거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윤성희	여기 당초에 예산 후원금 수입 금액 잡히는 건 어떻게 수익이 잡히는 건가?
곽인철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후원금이 이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월마다 후원금은 보통 정해져 있다. 근데 갑자기 기업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덜 들어오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줄었다. 솔직히 많이 줄었고 코로나 이후로, 또 요즘 이제 창원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곳을 보면 이제 시에서 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기업이나 그런 후원을 그쪽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현장에 다들 이제 시의 복지재단들이 생겨가지고 후원을 그쪽으로 몰리니 좀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로는 기업에서도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을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좀 조율하고 신청해서 운영위원회 승인받고 하려고 올린 것이다.
곽인철	다른 의문사항 없으면 기타 안건이나 특별히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해달라.
박영순	(심의사항 - 2호 의안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다.)
박영순	먼저 금강노인복지관이다. 24년 예산 총액은 일십삼억오천오백육십칠만사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일억구천일백구십팔만원, 보조금수입 칠억팔천삼백일만육천원, 기타보조금 오천일백일십칠만원, 후원금수입 일억이천칠백만원 외부지원사업 사천사백구십만일천원, 법인전입금 일천일백육십만원, 이월금 일억사천이백일십만육천원, 잡수입 삼백구십만일천원,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육억팔천구백오십팔만팔천원, 업무추진비 육백삼십사만이천원, 운영비 일억오천오백이십칠만사천원, 시설비 일천사백오십만원, 사업비 사억사천이백오십육만원, 외부지원사업 사천사백구십만일천원, 잡지출 일십만원, 예비비 이백사십만구천원이다.
곽인철	다음은 금강노인문화센터 24년 예산이다. 24년 예산 총액은 사억삼천칠백일십만칠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 수입 이천오백만원, 보조금 수입 삼억이백육십이만오천원, 기타보조금 일천팔백오십만원, 후원금수입 일천일백만원, 외부지원사업 일천만원, 법인전입금 이백만원, 이월금 육천팔백삼십만구천원, 잡수입 일십이만삼천원,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이억삼천오백삼십삼만구천원, 업무추진비 육십구만이천원, 운영비 삼천오백이십이만구천원, 시설비 삼백육십만원, 사업비 일억오천이백일십육만오천원, 외부지원사업 일천만원, 잡지출 오만원, 예비비 삼만이천원이다.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 좀 많이 줄은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관하고 문화센터에 보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팔억구천팔백오십만원을 받았는데 12%가 지금 감액되어 칠억팔백삼십일만육천원으로 내년도 운영비 가예산이 내려왔다. 그 다음에 분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삼억삼천육백이십오만원이었는데 10% 삭감해서 삼억이백육십이만오천원으로 되었다.
곽인철	이게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다. 시 보조금이 큰 역할인데 복지관하고 분관 합의 15%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10%씩 삭감을 한다 했는데 복지관은 12.5% 삭감이 되고 분관은 10% 삭감 되었다. 나도 복지를 30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처음이다. 항상 보면 경제도 안 좋고 이럴 때 동결이나 아니면 2% 인상 정도 였다. 매년 직원들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어르신들이 해마다 신입 어르신들이 들어오니까 항상 2%, 3% 이상 아니면 동결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복지관은 거의 13% 가까이 삭감을 12.8%, 분관은 10%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복지 현장에 오랜 세월 있으면 처음 경험이다.
윤성휘	다른 곳은 30% 삭감된 곳도 있다고 하더라.
강웅기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하겠다. 아마 이 일십삼억오천오백이라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예산도 아마 긴축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칙적인 예산이라면 일십삼억오천오백육십칠만사천원 전액 창원시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세입에 보면 보조금하고 기타보조금이 보조금 형식인데 팔억삼천사백일십팔만육천원 이것이 필요한 예산 일십삼억오천오백에 61.5%밖에 안된다. 창원시가 보조해야 될 게 실제 금강노인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의 61.5%밖에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100%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는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특례시 우리 인센티브 예산이 사천억원 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 끝나버렸다.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져 버렸고 또 이거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입,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창원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금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언젠가는 완성해야 될 가장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한 사업이지만은 당장에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위원들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나머지 61.5% 이상 안 되는 그 예산은 전부 다 금강노인복지관의 관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의 노력, 법인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법인 전입금도 있고 후원금이 있지 않나,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은 보조 예산의 외 항목이다. 전액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야 되고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은 그 외적 사업, 추가 사업, 특별 사업 아니면 시설 유지보수 또는 종사자들의 복리 이런 쪽으로 사용돼야 될 예산이다. 이거는 우리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상,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이상적인.. 금강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에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지만 당장에 또 몇 년 내에는 그게 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곽인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안타까운게 복지 특히, 지역사회 복지를 챙기는 지

	자체가 해야될 부분인데 지자체가 하고 이제 실천하는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딱 짜여진 그 부분밖에는 안 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해서 외부 자원도 받아오고 또 법인은 노력하고, 후원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로서는 나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 이게 어차피 관에서도 민간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하는데 어차피 여기 이용하는 분은 똑같은 창원 시민이지 다른 노인복지관은 공공 사람들만 가고 여기는 민간만 그런 게 아니다. 또 다 창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등하게 좀 챙겨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곽인철	혹시 궁금한 사항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신규 어르신들이 얼마나 들어오실지 우리가 사업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또 운영위원회 하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
일 동	알겠다.
○ 기타토의	
곽인철	회의 내용 외 기타 이야기하실 사항이 있는가?
일 동	없다.
○ 폐회	
곽인철	그럼 이상으로 2023년 4차 통합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다들 수고하셨다.